

자주적 혁신 위한 수습책 모색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행위」는 지난 5일 발족식 이후 지난 18일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진출내용관련 의혹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으며, 경주캠퍼스에서 지난 6일 공동대행위 발족식을 갖는 등 현 사건 수습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공동대행위의 요구로 李智冠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학내상황에 대한 입찰회의를 동국관(인사연세 8일)과 「향후 방향성」에서 갖고 민주적 총동맹을 안전으로 한 3

「파쇼타도·민중해방」

지난 6일 경주총학생회발족식 결의

경주캠퍼스 제 6대 총학생회와 특별기부회 학자투위회 발족식인 지난 6일 정오부터 김홍자(기조과정) 학생회장, 이종현(국문 4) 총학생회장, 李康娜 노조위원장 등 비롯한 교수, 학생, 직원 등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연, 여학생회, 학부회, 학자투위 발족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제 6대 총학생회 발족식이 진행됐다.

총학생회장 李君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파쇼정권은 명백한 학원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1만 동국인이 하나로 똘똘하게 뭉칠수 있다」고 말했다.

하고 「앞으로 구속학우석발, 전교조사수 투쟁들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캠퍼스부총학생회장 윤평현(국문 4)은 축사에서 「다가오는 민주총선거 속에서 인맥, 파벌을 혁파할수 있는 대안을 가진 총학생을 선출하도록 함께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장 李君은 부총선언문에서 「교과위에 의한 학문의 전담이폭과 수배제지의 수배제지 및 구속제지의 석발투쟁, 민주총선거 선출을 위한 인맥·파벌타파, 노태우파소도당 타도와 민중해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 이사진 전원사퇴 촉구 총회서 특위구성...이사개편키로 경주서도 「동국중흥 공대위」 발족

위한 사태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총학생회의 공대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서명운동 및 성명서 발표, 어음·무봉교수에 대한 폭로작업을 벌이며 공식적으로 교수회에 공대위가 발족하기로 했다.

李智冠총장의 사표제출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李智冠을 공시명단하여 대국인 사파와 대정부 항의를 끝자로 하는 성명서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오류 1시 4차회의 11일 을 갖고 3차례의 결정사항재확인 후 오후 5시 李智冠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李智冠은 입장표명 요구와 성명서 게재에 대해 시기상 부득정은 이유로 거절한 후 학내비밀적 결의 문제에도 현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오류 2시 5차회의 18일 을 갖고 총학생회 성명서 거부하라는 대책마련과 19일 있을 조계종 인사총회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정된 6개요구사항은 △현 이사진 전원사퇴 촉구 △총학생회 발족 △교과위 구성 △전국까지 부공권력 투입 반대 의사 천명할 것 △신인 및

의혹사항을 발견하고 지난 19일 이에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총 8가지 의혹사항에 관한 문제를 제시한 총학에서는 이중 △총학생회의 진출내용을 검토할 때 현구속자 이외에 관련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점 △포함명원을 기증받았다는 분지 1천 3호 (88년 10월 1일자) 기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7억 7천만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포함명원 인수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일으킨다는 점 △총학생회 통령은 89년 4월에 결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0일경 상해에 동국대 동계 운동한 것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는 이번 사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사는 점 등 3가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성명



◇지난 7일 오후 9시 총학·동연 문화부추진 집체 「피바다」 공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내에 사복경찰 18개중대 3천여명의 투입으로 공연시작 20분만에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87년 5월 11일 「남부지구 청년학생 투쟁연합창집회」 이후 2년만의 사건으로 공연정국을 발미삼아 자행되는 신성한 학원실탄로 보여진다. 이 예에 대해 학생들은 「폭력경찰 학내난입규탄 및 공연정국분쇄 결의대회」를 지난 8일 정오에 도서관앞에서 가진 후 중문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7면>

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학에서는 지난 20일 「부정입학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을 위한 공개요구 5개항」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총학에서 제시한 내용은 △현재 사법처리된 李智冠과 邢基柱 전교무처장 외에 尹鍾安 전 기획실장, 尹贊善 부처장, 宋在雲 학사처장, 陸植培 전 비서실장, 安應明 전 계산소장 등 5명에 대한 현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진정국인에게 공개 사과할 것과 그 관련 경중에 따라 교수직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다 △이에서 언급한 3가지

의문 사항에 관해 공개 해명하라 △분교부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방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 △재단은 황이 사장 공금횡령 및 부동산 투기 진상을 공개하라 △재단은 부당하게 빼앗긴 범여사 30만원 인야를 회수하고 그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등 총 5가지이다.

한편 본교 사태와 관련 조계종임시중앙총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린 「동국사태 수습을 위한 17인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이 특위는 사태수습, 조사, 세사사 개편 등 3가지 권한을 갖게 되는데 특위위원 17인은 송일주, 유일환, 박종하, 김능배, 최항운, 홍시연, 강자우, 김지형, 김경희, 김현근, 전삼자, 이정우, 김해법, 김필장, 방지하, 김홍삼, 김진장, 김남 등이다. 한편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교생 50여명이 공대위요구사항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東大文學賞 28일 마감
학문공동체 지향... 연재
<기사 3면>

서명운동등 8개 항결의

지난 7일 정기학생총회에 2천여명 참가

89학년도 제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학생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총학 집행부 및 단대 학생회장 17명의 공

동개회선언,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 4) 등의 인건상정, 김용정(철학) 전 교수의 의장의 격려사, 안건토론, 결의문 채택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결정결과 1천 8백 6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찬반투표를 거쳐 1만 동국인 서명운동등 8개항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총장은 인사부처의 대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5대 일간지에 대국인 성명을 게재할 것 △부정입학사건이 다시는 재

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전모를 공개할 것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분교·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 △교수회는 공대위에 즉각 참여하고 이를 위한 1만 동국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 △동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차기 총장을 추대할 것 △총장인후부자에 대한 학생의 신임권을 보장할 것 △입수배대표 사법처리 반대 및 국보법철폐를 위한 범국인 서명운동에 돌입 할 것 △삼강오육 실현위한 전교조사수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이다.

서독 슈파이어대 교수초청 자매결연기념학술강연

본교행정대학원(원장-朴興)과 서독 Speyer 행정대학원과의 자매결연기념 학술강연회가 Dr. Willi Blimel(前슈파이어 행정대학원장)을 연사로 오는 21일 오후 6시 잠실롯데텔 드 에머럴드룸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강연은 서독의 지방자치제도 중 「지방자치의 헌법 및 법률적 기본구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본사에서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경주캠퍼스 0명
②응시자격: 1. 1학년 男女 在學生 2. 사회초급도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별첨한지침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⑤원서접수: 서울 9월 28일 오후 4시까지
경주 9월 29일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9월 29일 오후 5시
경주 9월 29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 1. 차 문장·국어·상식·작문
2. 차 문장·1차 필적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원관 1201 (서울캠퍼스)
원료관 A301 (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9월 6일
동대신문사

보수

인 애정을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라는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사마의 가르침이

스승과 제자의 길

트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어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가지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의 길은 다름과 같다. 첫째로, 법을 따라 다 부어야 한다. 이것은 제자의 모든행동에 대한 지도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스승은 제자가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길은 그 본질이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과 같은 대학의 소용도리 속에서는 이와같은 가르침은 잘못대갈은 것이었다. 교수들은 제자들에게서 최소한의 존경심도 기대하

부처님께서 <善生>이라는 비라문에게 스승과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다. 먼저 제자의 길이다.

첫째로 제자는 스승이 필요한 것을 공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승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와 셋째는 스승을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존경심과 애정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어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가지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906 1989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나무여, 큰 나무여

이 큰 나무를 키워 온 것은 비와 햇빛만이 아니었다. 뿌리를 타고 오르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만이 아니었다. 뿌리를 뚫고 가지를 이루면서 얽히고 설켜 서로 붙이고 뒹굴면서 때로는 중추처럼 다들 돌고 하는 수만 수 십만의 승결 있었으니 비와 햇빛과 함께 물줄기와 함께 이 큰 나무를 키워 온 것은 승결이었다 이 뜨거움이었다.

이 승결들의 등쌀에 물부림에 나무는 자리면서 물살을 얹기도 하고 아예 여러 날 물져 놓기도 하고 잔 가지를 수없이 잃기도 했으나 이때마다 나무는 새롭게 푸르고 한 뼘씩 한 뼘씩 더 자랐다. 보라 승결들은 굵은 몸통에 불겨져 있다. 가지 끝에 우뚝 솟아 있다. 온 나무에서 아름다움으로 잔 결의 아름다움으로 피고 있다.

신경림 동문의 <모교개교기념일> 시흥에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대학입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대학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 문과대학 / 이과대학 / 법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 경상대학 / 농과대학 / 공과대학 / 사범대학 / 예술대학 / 이부대학 (야간강좌)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법정대학 / 상경대학 / 한의과대학 / 의과대학

대학원
대학원 / 경영대학원 / 행정대학원 / 교육대학원 / 정보산업대학원 / 지역개발대학원 (경주)

의료원
의과대학부속병원 / 포항병원 / 한의과대학부속병원

부속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 명성여자중·고등학교 / 금산중·상업고등학교 / 흥제중학교 / 은석국민학교

1906년 우리 東國의 전신인 明道學校가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김의동이 지금의 명인입니다.

학원민주화를 지향하면

우리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이 임시부장과 관련, 구속되었던 사실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든 대학이 감추고 있는 지부의 극히 일부가 드러난 사건으로 단순히 놀라고 분노하는 데서 그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이방의 대학과 학원이 민족과 민중의 현실에 불응한 지체급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권위화한 「지적노동」에만 매달려온 파벌화, 권위화, 실정없는 나약한 이론은 현실유지, 체제안정의 도구로서 의외와 독재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학의 이러한 모순구조를 각인한 우리는 이미 「학원민주화」의 깃발을 세우고 현실의 모순변혁을 위한 학원과 대학의 전통을 전승해가자.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의 학원구조와 이론·사상의 결함을 위해, 올바른 학원과 대학을 고민하며 학원공공체를 지향하는 열제기회를 마련, 제정한다. <편집자>

지 전제와 어울려서 우리의 것, 우리 민족의 것을 억누르고 있다. 대학과 학원 또한 예외일 수가 없는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지가 나타나는 것이 식민주의사관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식민주의 사관이란 일본어용사학, 즉 식민주의사관이 부린 극단적 실증주의사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이 받아와 자료의 수집과 발굴을 두루하고, 사론과 이론을 기피하여 일본 식민주의사관을 반증하는 실증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할필 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학으로, 민

식민주의사관의 아류를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시킬 수 있는 인적지원을 양성했다. 다섯째, 위의 결과로 학원이실 전성을 외면하여 학원이란 것이 민족의 문제와 민중의 문제와 대립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원과 사회의 분리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일체의 유산을 이어받은 학원계에서 순수해방공간을 맞이해서 토마스·쿤 (T. Kuhn) 이 이야기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 식민주의 아류인 극단적 실증주의적인 학원이 도태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사회의 기타 여러 가지 식민주의사관과 함께 체결되었어야 할 이 식민주의사관의 아류가 미약이 남조선을 점령함으로써 기사회생하여 대학과 학원계에서 더욱더 큰 세력을 장악했다.

이러한 일체의 유산을 이어받은 학원계에서 순수해방공간을 맞이해서 토마스·쿤 (T. Kuhn) 이 이야기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 식민주의 아류인 극단적 실증주의적인 학원이 도태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사회의 기타 여러 가지 식민주의사관과 함께 체결되었어야 할 이 식민주의사관의 아류가 미약이 남조선을 점령함으로써 기사회생하여 대학과 학원계에서 더욱더 큰 세력을 장악했다.

세계 개입하지 않는 상태인 순수해방공간 시절에서 우리 조선이 나아가갈 여사의 길은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독점자본주의와 다수정당제를 지향하는 진보적민주주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이 진보적민주주의의 추동세력을 거세하고 한반도 전체 또 이것이 안 되면 남한만이라도 미국이 원하는 자본주의체제와 대소포위망 반공정권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가장 부응하는 집단이 친일파이고 이 친일파의 대표인 조직체가 한민당이었고, 또 그들과 야합한 이승만을 중심으로한 미국유학파집단들이었다.

그러나 식민주의사관의 침산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친일파와 제국을 옹호하는 또 이승만집단의 친미파와 세력기반을 왜색시킴을 뜻했다. 바로 여기에 미점령군의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없는 요인이 있고 오히려 일제잔재를 존속, 발전시켜야했던 미점령군의 점령정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과 학원의부의 권위화, 친일파의 사회구조적 재건과 친민주사관이 미점령군과 친일·친



강정구 <사회과학대교수·역사사회학>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대학에서는 총장의 연설에서부터 강의 중 학생들에게 내리는 교수의 훈계에 이르기까지 상아탑이란 말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대학을 지칭하는 상아탑이란 어휘는 일제식민통치기간에 침략자 일본인들이 즐겨쓰던 말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70년대까지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대학을 사회 또는 속세의 벽에서 고고한 자제로 학문의 연마에 전념하는 별개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어느정도 속세의 초연한 별세계를 풍겨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상아탑이란 호칭이다. 본고는 오늘날의 대학이, 그리고 학원이 이러한 상아탑적인 모습을 띠어서 되겠는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즉 실정성을 외면하는 대학과 학원의 풍토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부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아탑적인 대학과 학원의 모습을 견지해나갈데가 미지는 사회적 결과라는 어떤 것인가는 짚어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이 학원의적인 제약으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대학운영, 대학사회의 개혁, 학원공공체로서의 위상정립, 대학 구성원간의 민주적 관계수립, 민족주의적 민족주의, 엘리트주의의 극복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들은 학원과 대학의 실정성이라는 짚에 쫓겨 해를 맞고 있는 대학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 소박한 시도이다.

I. 대학과 식민주의사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말살정책인 식민주의사관에서 벗어나지도 45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또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점령통치의 철폐에서 흘러나오지도 약 42년이란 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문화적·정치·사회·교육·문화 등 권력핵심부위에서 권력결핵되었다. 거기에서 미점령군외의 군사통치와 보호자인 제국은 미국의 패권성이 기존 일본의 식민

상아탑 허물아래 민족현실 눈감아와



◇대학의 모순구조 혁파를 위해 우리는 학원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가치중립" 명분... 학문의 실정성 외면 사회구조 모순 파헤쳐 「개혁」 주창해야

족의 당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유지를 지향하고 정당화시켜 주는 반민족적 사관을 말한다. 이러한 학원공공체와 학원이 실증주의사학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당시 국사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기술결정론에 치우친 자연과학에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80년대에 까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식민주의사관이라고 할수 있는 실정성을 외면하는 실증주의의 지배와 학원공공체에 대한 역사적 요인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장감각이 없고 실정성을 외면한 학원의부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과거제도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 엘리트나 지배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또는 그들의 「지적노동」으로서의 학원공공체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지성의 무기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당대의 모순을 제대로 파헤쳐 해결하고 따라서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음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실유지와 체제안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학원의 현실성을 외면했다. 즉 학원은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발현해서 부당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현실성을 외면함으로써 일제통치의 질곡에서 허덕이는 조선민중에 무관심했고 민족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종 일관 침묵을 지킬뿐으로 일제배에 협력적으로 기능적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원계에서 종사하는 개인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학원 연구 영역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비록 민족의 수난과 민중의 절곡에 눈을 감더라도 실증주의의 과학이라는 「정당한」 학문의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자기변명과 정당화를 이 식민주의사관의 아류인 실증주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셋째, 앞의 학원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무비판적 연구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넷째, 다른 사관인 사회계급사관이나 민족주의사관을 조선총독부의 제도권 교육인 대학에서외로 축소시키고 암묵적인 식민주의사관의 지지하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추화들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갈길는 차례

1. 한국대학의 모순구조
2. 종립대학으로서 東大의 문제
3. 민족대학의 위상과 과제
4. 건학이념의 올바른 구현
5. 학원공공체를 지향하며

미점령한 한민당과 그 동맹세력인 이승만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학원공공체에서 학계의 경기규칙에 의한 이론투쟁이나 과학성도에 의해서 식민주의사관의 아류인 실증주의사관이 학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국사학계에서 이병도, 이선근 등을 중심으로 한 식민주의사관의 연속이 아직까지도 튼튼한 세력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원의 영역에도 비판적이고 실정적인 성향의 학파가 성립할 수 있는 발전구축이 80년대까지 철저히 봉쇄되고 탄압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허위외식인 이데올로기의 미명하에서 이러한 탄압과 봉쇄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개혁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즉 실정성을 외면하는 학원의 부리는 지성의 무기로서의 학원과 대학의 상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해방공간을 맞이한 이래로 미점령이라는 매개변수와 친일·친미세력의 정권장악이라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주어진 규정에 제도권대학속에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식민주의사관의 지배가 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란 것도 비록 원인은 수 있지만 오늘날

학생복지위원회 1학기 결산공고

자동판매기		4월	5월	6월	7월	8월
매출액	21,518,532	29,507,750	27,868,910	22,852,350	22,708,360	
매출원가	8,792,254	17,780,511	18,222,468	13,479,133	14,136,194	
1) 기초재료제고액	3,503,599	3,983,468	3,365,832	6,969,312	7,700,474	
2) 당기재료제고액	9,272,129	17,162,875	21,825,948	14,210,295	9,504,851	
3) 기말재료제고액	3,983,468	3,365,832	6,969,312	7,700,474	3,069,131	
매출총이익	12,726,278	11,727,239	9,646,442	9,373,217	8,572,166	
일반관리비	9,003,267	4,843,171	4,360,365	3,829,440	3,162,845	
1) 퇴직금채출금	6,367,250	3,326,250	3,346,250	2,569,375	2,136,525	
2) 퇴직금상환비	1,970,407	1,036,521	459,025	812,365	576,850	
3) 퇴직금관리비	119,090	165,220	141,580	57,320	183,250	
4) 자판기소모비	139,500	125,000	75,000	50,000	50,000	
5) 자판기수리비	174,000	60,200	144,530	178,050	178,050	
6) 사무용품비	159,990	98,990	154,130	204,400	168,760	
7) 손실금상환비	59,200	22,950	39,850	20,220	20,500	
8) 잡		8,300				
영입이익	3,723,011	6,884,068	5,286,077	5,543,777	5,409,321	
영업외수익	1,250,000	6,350,000		3,476,000	1,094,000	
1) 후원금	1,250,000	6,150,000				
2) 기부금		150,000				
3) 저부담금		50,000				
4) 자동차충당금						
5) 타자충당금						
영입총액	4,973,011	13,234,068	5,286,077	9,017,777	6,503,321	
잔액						3,476,000

영입외비용	5,693,825	3,642,634	2,749,609	6,100,399	3,085,060
1) 학기구독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2) 학기구독비	13,000	50,600	3,000	6,000	6,000
3) 학기구독비	20,000			38,100	53,300
4) 학기구독비	5,900				
5) 학기구독비	707,954				
6) 학기구독비	90,720				
7) 학기구독비	4,741,241				
8) 학기구독비					
9) 학기구독비				38,570	65,000
10) 학기구독비		30,000			
11) 학기구독비				2,846,410	50,000
12) 학기구독비				25,000	25,000
13) 학기구독비				86,700	105,000
14) 학기구독비					
15) 학기구독비					
16) 학기구독비					
17) 학기구독비					
18) 학기구독비					
19) 학기구독비					
20) 학기구독비					
경상이익	-725,814	9,591,434	2,536,468	2,919,378	3,418,661

복사기	4월	5월	6월	7월	8월	재고	처분	공급	추진
수입금	9,741,838	954,890	1,102,050	314,800	424,450	300,450		337,400	
지출금	8,428,838								
잔액									4,749,704

특별사업	60,000	2,050,000	1,673,333	559,680	1,418,500
1) 비축금지출	60,000				
2) 출자금		1,000,000			
3) 차입금		1,000,000			
4) 학자출금		50,000			
5) 학자출금			1,000,000		
6) 고등학생차입금			673,333		
7) 장학금				559,680	
8) 장학금					370,000
9) 후원금					48,500
당기순이익	-785,814	7,541,434	863,135	2,359,698	2,000,161

<각주>
1. 4월 상품감소분은 학교측과의 인수인계시 발생한 부속 수량으로 인하여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함
2. 4월 금로중 기존 근로학생을 해소하기로한 학교측이 이를 해결하지 않아 기존 근로학생들의 3개월분의 금로 4,320,000원을 학교측에서 부담하였음
3. 인수인계시 감가상각충당금 25,551,067원이 설정되어야 하나 학교측의 실질 충당금은 11,892,931원으로 13,658,136원이 부족한 상태로 인수인계받았음
4. 상기 결산자료는 학생복지위원회가 직영한 이후로 1학기 직영내용을 결산공고하는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회화관 1층 학생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모든 자료를 자신있게 공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21대 총학생회 학자투 학생복지위원회

1. 새로운 질적 전환

학생운동의 질적전환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격정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선배들의 지극한 목소리와는 그 정서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합일 민주해방부 정부부 선도적 정치투쟁의 실천부대로서 그 전통을 이어왔던 학생운동에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학생운동을 「이탈 세력」 「배대 운동」 「70년대 급격하게 몰락한 일본의 학생운동」을 빗대어 현재의 질적전환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이 큰 만큼 노력도 크다.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극복한다면, 남한 사회 학생운동의 제 3기가 완하게 열릴 것이다. (제 1기: 1980~1984~조직 운동의 실험기, 제 2기: 1984~1988~조직 운동의 정착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정립 하는 작업과 비판적 문제제기를 종합하여 극복의 대안을 수립 하는 것이다.

문제 극복의 출발점은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상 노동계급의 동맹군적 위상과 4대역할 (선도적 정치투쟁, 민중생존권 지원투쟁, 진보적 이론의 연구 및 전파, 선진활동가의 배후장구)로 설정되어 온 것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그 위에서, 전대협의 관성적 투쟁노선비판, 형식주의·권위주의적 사업종파, 학생운동 자체에 대한 경계의 논조비판의 문제제기를 극복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해 낼 때만이 학생운동의 제 3기는 질적전환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조직 운동의 질적전환기를 위해 하기 위해서는 5월16일 결

성된 서울민주주의 학생연맹 건추위 (이하 서민화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대협의 비폭력 선언 13일후 전개된 화염 시위로 사람들을 당혹 시켰던 서민화련의 출범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서민화련의 출범을 조직노선상의 문제, 즉 반합법적 정치 조직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사상적 혼란기에 일침을 던져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파악한다.

85년 CNP (CDR-시민민주주의 혁명, NDR-민중민주주의 혁명, PDR-민중민주주의 혁명)은 70년대 급격하게 몰락한 일본의 학생운동을 빗대어 현재의 질적전환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이 큰 만큼 노력도 크다.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극복한다면, 남한 사회 학생운동의 제 3기가 완하게 열릴 것이다. (제 1기: 1980~1984~조직 운동의 실험기, 제 2기: 1984~1988~조직 운동의 정착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정립 하는 작업과 비판적 문제제기를 종합하여 극복의 대안을 수립 하는 것이다.

문제 극복의 출발점은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상 노동계급의 동맹군적 위상과 4대역할 (선도적 정치투쟁, 민중생존권 지원투쟁, 진보적 이론의 연구 및 전파, 선진활동가의 배후장구)로 설정되어 온 것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그 위에서, 전대협의 관성적 투쟁노선비판, 형식주의·권위주의적 사업종파, 학생운동 자체에 대한 경계의 논조비판의 문제제기를 극복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해 낼 때만이 학생운동의 제 3기는 질적전환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조직 운동의 질적전환기를 위해 하기 위해서는 5월16일 결

조직노선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PD진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양파는 이제 학생운동 내부에서의 정파 분리를 극복하고 단합한 통일 전선체제 정립을 구할 해야 한다는 것에서 일치점을 형성하여 통합의 과정을 밟게 된다. 전체 운동의 사상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학생운동 내부에서 조직노선 분점으로 외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 학생운동내의 사상적 대립 구도는 NL (추사파), 마르크스-레닌주의 진영 (ND-P

다. 특히 전체 학생대중으로 부터 학생회가 정치투쟁 편향이라고 비판받고 있는가 하면, 선진대중에게는 오히려 학생회가 투쟁을 형식적으로 하고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원인을 미약 하나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양 노선은 건전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대중이 「따르거나 하는 노선」이라고 보기에 많은 한계와 오류를 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회강화론의 경우 해당파적 견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즉 폭력적·실천 활동을 대중조직 속에서 자생적으로 내어 올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스스로의 문제를 느끼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을 종합해볼때 양노선은 건전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적 대중사업으로 외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양노선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치의 가능성 역시 없지는 않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노선의 문제는 단순히 조직의 체계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대중사업을 바라 보는 시각까지 사상적인 관점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서민화련의 결성 5월16일 결성된 서민화련의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은 조직적 전방을 전구적인 정치·조직의 연합체로 결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민화련의 결성에 맞추어 현재 서민화련의 경우 부산지

역 안동지, 대구·경북지역, 전라남도, 충청도, 강원도, 수원, 인천 등에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전민화련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화련에도 강원도의 자민화련과 전북지역의 민화련 세력이 서민화련과의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직 통합까지 목적이 있다. 이들은 필지없이 통합을 하리라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약간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세력이 대단력을 띠어왔던 소시민주 학생운동 노선에 맞 설수 있다는 상호간의 필요성에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민화련의 건설은 2~3년내에 가능하리라 생각 되지만 그 과정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진정 서민화련이 반합법정치조직노선에 근거하여 반합법권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한계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소규모 세력 사업 방식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적 편향을 견지해야 한다. 현재 같이 학생회=조합활동, 반합법정치조직=정치투쟁이라는 형이상학관점을 지니고 있을 때 서민화련은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서민화련은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대중 투쟁의 구심점으로 학생회를 움직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풍부한 지도내용의 수립이 중요하다. 40만 청년 학생의 구심점으로 서민화련이 서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풍부한 지도내용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대협의 비폭력 선언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전대협의 파쇼와 타협한 편향적 선언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많은 학생에게 받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제기가 명확한 대안에서 체계적으로 제출되지 못했기에 학생대중은 서민화련을 믿고 따르지 못했었던 것이다.

셋째, 서민화련이 학생운동내의 ML주의 세력의 총 단결체가 되기에는 극복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서민화련은 서민화련과 민화련의 통합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자민화련·민해전 및 제ML주의 세력을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합적 결서는 일정한 한계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민화련은 제정파의 상층 연합적 결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전대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총학생회와 반합법정치조직이 상호보조적 관계임을 밝히지만, 실제로는 대립되는 총학생회 관계로 형성되어 버렸다. 서민화련과 서민화련이 대립되는 관계로 형성 될 때 강력한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상호보조적 관계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학생회와 보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를 구현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서민화련이 극복한다면 학생운동내의 ML주의 세력은 약간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동단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문제는 진정 학생운동이 통일된 실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전대협과 서민화련의 위상과 발전 전망, 상호관계와 활동방식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진정한 학생운동의 통일된 실천 투쟁을 확립해 나가는데 있다.

이러한 명확한 전망을 이루기 위해 실천 투쟁속에서 확연히 드러 낼 것이며, 학생대중의 대중적 힘으로 강제받게 될 것이다. 김관형 <공대 사회과>

대중성과 진보성 모두 갖춰야 한다



○87년 3월 「제헌의회소집」을 외치며 본교 중문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학생운동의 새로운 질적전환을 위한 모색

D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전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NDR론인가! PDR론인가!는 아닐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실천적 투쟁일 것이며 과학적인 노선에 입각한 청년 학생의 통일단결이다.

2. 조직노선의 문제 학생운동은 신식민주국독재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 학생의 일부로 부여된 4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조직을 변화시켜 왔다. 조직노선 논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조성된 정세와 조건에서 운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즉 역동적인 조직의 변화는 6월대 투쟁·대선·총선을 거친후 어떠한 조직이 변화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변화에 순응하는 조직노선을 채택하는 것이 되

다. 산개조직 관점에 빠짐으로써, 학생운동내의 지도 조직을 부인 학생회 강화에 복수 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합법정치조직노선은 반합법적 학생회는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지도 조직은 그 질이 현저히 추락하게 된다. 「절대적 학생회」를 파산시키고 대신급 선진 대중 조직이 제기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또한 학생회강화론은 쉽게 목적의식 관점을 상실하고 조합론 외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양노선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치의 가능성 역시 없지는 않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노선의 문제는 단순히 조직의 체계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대중사업을 바라 보는 시각까지 사상적인 관점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서민화련의 결성 5월16일 결성된 서민화련의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은 조직적 전방을 전구적인 정치·조직의 연합체로 결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민화련의 결성에 맞추어 현재 서민화련의 경우 부산지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역량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과 신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학습공간과 교수진 확보같은 기본조건에 대한 배려에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과제 학우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단과대로서의 학문적 결집이 어려울뿐 아니라 한의결집에 연구실이있는 교수님의 경우 정반대측에있는 원호관에가

서 강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간의 부분별한 활용을 성토하고 있다. 자연대가 이렇게 된다는 단과대 편성에 있어서 경우대학에서 문리과대학, 그리고 현재 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비체계적인 학과신설과 더불어 학과 신설에 앞서 해결 지워야 할 교육역량 확보에 극히 부족한 노력을 기울였기때문이다. 자연과학대의 최대 숙원으로 자연과학관 영취를 삼은 것은 여기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학교단위의 관련자로서 「현재 재건된 공사중심의 외대부속원과 여학생 기숙사가 완결지어진 뒤라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다. 학교에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역량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과 신설은 중단되어야 하며 학습공간과 교수진 확보같은 기본조건에 대한 배려에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과제 학우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단과대로서의 학문적 결집이 어려울뿐 아니라 한의결집에 연구실이있는 교수님의 경우 정반대측에있는 원호관에가

현사태를 호도하는 졸속 총장 선출을 반대한다 - 거듭 교수님들의 공대위 참가를 호소하며 - 동국의 자궁실을 나락에 떨어뜨린 「부정입학 사태」가 이집관 총장의 석방과 총장사퇴의 사 표명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현사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하여 우리는 산적해 있는 실천적 과제를 견뎌내고 병렬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한 요인으로 우리는 지난 9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각급의 총장선출을 둘러싼 내부 분열상이 일부 표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진정으로 동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일부교수들의 음모적 주도하에 차기 총장 선출을 졸속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한다. 현사태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기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고 학내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지어야 할 일부 무능 어용집단이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기 총장은 어느 한 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된다. 「공대위」에 참가하는 제 단체들은 졸속한 총장 선출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 부정입시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냉철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선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어서는 안된다. - 총장선출은 범동국인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하여 동국인의 일치단결된 노력만이 현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학내분열 책동에 대해서도 결연히 투쟁한다. 1989년 9월 18일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총학생회/직원노동조합/대학원학생회/조교협위회/불교연합회/민중동맹회/석림동맹회

우리의 가슴에 우뚝설 흰 코끼리 우리가 만드는 정성이며 자랑스러운 코끼리 66 역사를 만드는 일은 한사람이 하기엔 힘든 것입니다. 동국의 큰빛 내린지 한세기 - 어디서나 깨끗하게 버티어 서서 웅비하는 모교를 더욱 찬란히 하는 일에 힘을 모아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66 동국의 구심점은 상징탑 건립으로! 상징탑 건립하여 동국위상정립하자! 온라인구좌 ○우체국 703538-0004730(진병길) ○중흥은행 804-6-138264(진병길) ○농협 749-12-085796(진병길) 동국인 모두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상징탑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총학생회장), 부위원장: 진병길 (총교무장) 경북경주시 석장동707 ☎(0561) 2-0131-63249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상징탑건립추진위원회

I. 들어가는 글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반민주적 내용이 일련의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불법연행→「특수시설」에서의 장기구금 및 고문수사→국보법의 적용이란 일련의 과정에서 일단 「합법적」한 국보법의 유효기에 걸려들면 피의자의 인권은 참혹하게 유린되어 왔던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 1의 과제로 강령해 왔으며, 그 결과 보다 높은 이념과 가치까지도 희생되게 하는 본말전도적인 반공지상주의가 무비판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되어 왔다. 「이데올로기」에 관한 국민적 의식의 수준은 1950년대식 북진통일정책하의 냉전논리의 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축전에 참가한 입수검 대표에게도 ①지령수사합입합출 ②이적단체가입 ③반국가단체 찬양, 동조 ④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합류등 어찌하지 않은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반통일적 현행 조항에 따라 「최고사형」을 선고받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국보법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본질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국가 보안법의 제정배경

현행 국보법은 80년 5월 17일 국회가 해산된 이후 비정상적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 여기서 반공법이 제정되고 국보법이 출몰하는 데 기여한 유는 간단하다. 「국보법」과 「반공법」은 동일한 목적·내용을 갖고 있었고 해석과 적용면에서도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또한 시행과정에서의 많은 인권침해 사례와 한국이 반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비판 속에서 반공법을 형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내외적 명분을 얻고자 한 것이다.

즉 현행 국보법은 구국보법과 반공법의 특소조항을 보존하고 체계화한 법이다.

해방이후 미국과 보수우익진영은 5.10헌법과 분단을 고정화시킨 반유니테로기로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이는 여순봉기 진압후에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나타난다. (48.12.1)형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형법제정(33.9.18)보다도 빨리 제정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 법의 필요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검거·투옥된자는 49년만에 11만8천6백21명이며, 같은 해 9~10월에 132개의 정령, 사적단체가 해체되었다.

이후 반공을 구호로 내건 5.16 군사정권은 4·19이후 자유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국보법만으로는 소위 「용공행위」가 규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1년 7월 역시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더구나 반공법은 의견상의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였으며 이는 고의성이 결여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심지어 「6·25의 도발은 소련과 미국을 위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나쁘지 않지만 방법은 나쁘다」 정도의 발언을 한 경우, 술자리에서의 노래, 전문적인 우표수집가의 북한 우표 수집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남양에서는 본있는 사람은 잘살고 돈있는 사람은 못산다」라고 함양을 국가기밀누설로 처벌했으며, 악음, 악음의 소리는 커질수록 밖에서 나온다.

III. 현행 국보법의 해석상의 문제점

1. 반국가 단체개념의 모호성

문목사의 방북과 입수경시의 평속참가를 지배세력은 「국기보안법」이라는 특수법률의 범위로 남도설 하고있다. 애국민주적 성격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가모하는 「국가보안법」이란 어떤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사상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2. 국가기밀개념의 확대해석

이 관례에 의해 엄청난 확대해석되어 왔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가 누가 몇표로 당선되고 개각이 단행되어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세계 공지의 뉴스를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일지도. 처벌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TV 방송고가

3. 찬양·고무 동조죄

법 제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이 규정어휘로 국보법의 꽃이요 형법법규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있는 본보기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관련된 근본문제점이 바로 국보법이 사상탄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찬양·고무·동조」라는 의미는 실제 적국적인 공도행위나 실행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단계의 단순한 주관적인 의사표현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기보안법

그렇다면 일정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그칠뿐인 의사의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라고 함양을 국가기밀누설로 처벌했으며, 악음, 악음의 소리는 커질수록 밖에서 나온다.

5. 잠입탈출죄

이 조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북간의 모든 왕래, 접촉은 처벌되어하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범죄의 형평을 잃고있다. 언론사의 내부 취재계획을 「탈출에비유」로 간주하여 관공을 이라는 해괴한 일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IV. 국보법의 적용과정의 문제점

이러한 대공사건전담기구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대공사건기구가 경제적으로 온갖 무리한 비공개 밀집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관공화」된 불법연행, 구금상태 속에서 고문수사가 조직화되고 있다.

V.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V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V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VI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IX.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I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IV.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V.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V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V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VI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IX.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X.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X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XXII.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어 남용, 악음의 소리는 커질수록 밖에서 나온다.

2. 국가기밀개념의 확대해석

이 관례에 의해 엄청난 확대해석되어 왔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가 누가 몇표로 당선되고 개각이 단행되어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세계 공지의 뉴스를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일지도. 처벌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TV 방송고가

3. 찬양·고무 동조죄

법 제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이 규정어휘로 국보법의 꽃이요 형법법규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있는 본보기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관련된 근본문제점이 바로 국보법이 사상탄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찬양·고무·동조」라는 의미는 실제 적국적인 공도행위나 실행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단계의 단순한 주관적인 의사표현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기보안법

그렇다면 일정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그칠뿐인 의사의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5. 잠입탈출죄

이 조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북간의 모든 왕래, 접촉은 처벌되어하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범죄의 형평을 잃고있다. 언론사의 내부 취재계획을 「탈출에비유」로 간주하여 관공을 이라는 해괴한 일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6. 국보법의 적용과정의 문제점

이러한 대공사건전담기구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대공사건기구가 경제적으로 온갖 무리한 비공개 밀집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관공화」된 불법연행, 구금상태 속에서 고문수사가 조직화되고 있다.

7.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8.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9.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0.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1.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2.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3.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4.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5.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6.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7.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8.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9.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20.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21.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어 남용, 악음의 소리는 커질수록 밖에서 나온다.

2. 국가기밀개념의 확대해석

이 관례에 의해 엄청난 확대해석되어 왔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가 누가 몇표로 당선되고 개각이 단행되어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세계 공지의 뉴스를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일지도. 처벌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TV 방송고가

3. 찬양·고무 동조죄

법 제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이 규정어휘로 국보법의 꽃이요 형법법규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있는 본보기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관련된 근본문제점이 바로 국보법이 사상탄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찬양·고무·동조」라는 의미는 실제 적국적인 공도행위나 실행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단계의 단순한 주관적인 의사표현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기보안법

그렇다면 일정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그칠뿐인 의사의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5. 잠입탈출죄

이 조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북간의 모든 왕래, 접촉은 처벌되어하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범죄의 형평을 잃고있다. 언론사의 내부 취재계획을 「탈출에비유」로 간주하여 관공을 이라는 해괴한 일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6. 국보법의 적용과정의 문제점

이러한 대공사건전담기구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대공사건기구가 경제적으로 온갖 무리한 비공개 밀집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관공화」된 불법연행, 구금상태 속에서 고문수사가 조직화되고 있다.

7.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8.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9.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0.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1.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2.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3.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4.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5.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6.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7.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8.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19.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20.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21. 글을 마치며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지역에 가지 말며, 거기서 오지 말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하지 말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며, 거래·고통하지 말며, 그에 반한 자를 알린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는 20세기의 문명이다.

어 남용, 악음의 소리는 커질수록 밖에서 나온다.

2. 국가기밀개념의 확대해석

이 관례에 의해 엄청난 확대해석되어 왔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가 누가 몇표로 당선되고 개각이 단행되어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세계 공지의 뉴스를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일지도. 처벌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TV 방송고가

3. 찬양·고무 동조죄

법 제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이 규정어휘로 국보법의 꽃이요 형법법규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있는 본보기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관련된 근본문제점이 바로 국보법이 사상탄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찬양·고무·동조」라는 의미는 실제 적국적인 공도행위나 실행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단계의 단순한 주관적인 의사표현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기보안법



화, 발전은 제국주의 독점체제의 더욱 고도의, 거대 규모의 자본과생산의 집적·집중을 가속화시키고 발전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금융·자본적 종속을 심화시킨다.

특히, 선진자본주의 나라의 과학기술혁명은 선진자본주의 나라들 사이, 제국주의와 발전도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을 더욱 확대·심화시켰다. 현대과학기술혁명은 선진자본주의나라에 발전도상국을 후진상태로

은 물론 남반반혁운동의 실천적 견지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발전도상국의 몇몇 나라가 선진자본주의나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방하는 저자의 분석은 자본주의적 국제분업체제, 현대과학기술혁명의 의한 선진자본주의나라와 발전도상국의 경제적·정치적 불균등발전의 심화, 발전도상국의 기술적, 금융·자본적 종속의 확대를 간과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

대적 미성숙에 의해 국외로의 진출이 교부된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의 규정성은 남반반혁운동의 이윤추진과 생산과정에서의 재부자의 조건을 약화시켜 자본의 해외진출, 잉여자본이 유출되어 남반반혁이나 소비재 생산부문에 흘러 넘쳐 들어가기 한다.

2. 남반반혁의 자본의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독립적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수출과는 달리

한 자본주의가 『장래에는 선진자본주의국들과『일상적인』 상호의존 및 상호관계를 맺는 쪽으로 이행하리라 예견되는 데, 남반반혁은 이러한 이윤이『세계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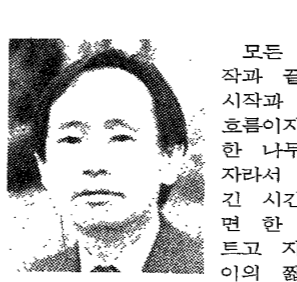
발전도상국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은 제국주의의 독점체제에 대한 종속의 심화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국제분업 질서에 편입되어 제



귀향

李鍾燦

<문과대교수·한문학>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이르는 시간도 이 긴 시간 속의 짧은 시간적 반복 속에서 살아 지속되고 있다. 이 태어남이 시작된 장소 이것을 일러 고향이라 부를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향이 있는가? 태어남의 장소가 다름아닌 보아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고향이란 참으로 이색한 말이다. 태어남의 장소는 호적에 명기되도록 되어 있다. 의외사실이 발견되어 고국산부인과가 성립한 오늘에 있어서 태어남의 장소는 ○○병원이다. 호적에 등재된 태어남의 장소가 바로 이 ○○병원이다. 여기에서의 고향은 어디라 해야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고향이 있다라고 또 한 분명히 고향을 그리워 한다. 이 고향은 나의 고향이기 이전에 조상들의 고향이다.

조상님들이 살았던 고향이다. 조상님들이 농사짓고 살았던 고향이다. 농사라는 한 가지에 정취를 느꼈던 고향이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죽는다. 나그네의 연속이 한 장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상공문화에서 살면서 살고 고향이라 하면 시골을 연상시키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활의 방편이라 수를 이룬다. 이윤이 찾아다니고, 이윤이 없었던 조상님들보다 고향이 더 그리워할 수도 있다.

며칠전에 추석이 지났다. 도시의 인구

남한사회성격논쟁 변혁운동에 일익담당

「남한 경제론」을 읽고

다. 제국주의 독점체제는 현대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발전도상국 토착독점자본을 발전, 종속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발전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경제발전전략의 모델은—남한은 그러한 발전전략의 전형이다.

제국주의 독점체제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최첨단기술산업의 하위계열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켜 자본주의 국제분업의 질서에 뛰어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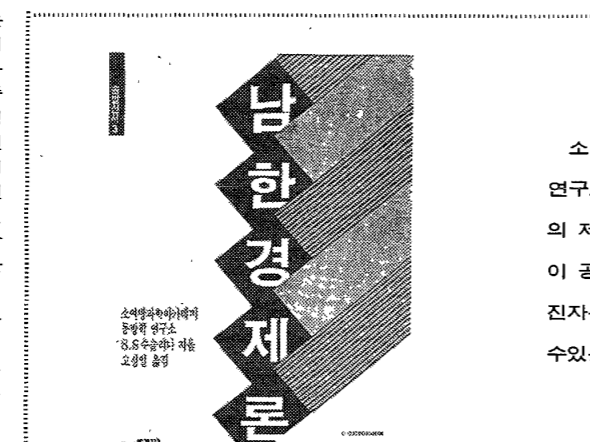
제국주의 독점체제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최첨단기술산업의 하위계열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켜 자본주의 국제분업의 질서에 뛰어들는 것이다.

제국주의 독점체제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최첨단기술산업의 하위계열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켜 자본주의 국제분업의 질서에 뛰어들는 것이다.

제국주의 독점체제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최첨단기술산업의 하위계열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켜 자본주의 국제분업의 질서에 뛰어들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다. 제국주의 독점체제는 현대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발전도상국 토착독점자본을 발전, 종속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발전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경제발전전략의 모델은—남한은 그러한 발전전략의 전형이다.

제국주의 독점체제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산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최첨단기술산업의 하위계열을 발전도상국에 이전시켜 자본주의 국제분업의 질서에 뛰어들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정치·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을 남한경제 분석의 논거삼아

발전도상국의 기술·금융·자본종속 확대 간과하기도 제국주의 신식민지착취 이탈등 사회 진보기능 제시

적 운동에 나타난 상이함과 굴곡을 많은 점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유로 저자의 아(亞) 제국주의론은 발전도상국내에서의 분화 및 불균등 발전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고 선진자본주의나라와 발전도상국의 불균등발전을 부차화시키는, 정치경제학이론·방법론

정치·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을 남한경제 분석의 논거삼아

발전도상국의 기술·금융·자본종속 확대 간과하기도 제국주의 신식민지착취 이탈등 사회 진보기능 제시

적 운동에 나타난 상이함과 굴곡을 많은 점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유로 저자의 아(亞) 제국주의론은 발전도상국내에서의 분화 및 불균등 발전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고 선진자본주의나라와 발전도상국의 불균등발전을 부차화시키는, 정치경제학이론·방법론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은 시간의 흐름이자 연속이다. 한 나무가 썩어지고 자라서 마르고 썩는 긴 시간이 있는가하면 한 가지와 잎이 되고 지는 사이 사이의 짧은 시간이 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2만동약인들의 열려진 문화광장에 여러분의 참신한 문열림의 노크를 기다립니다.

- ▲시 : 매수 제한 없음
- ▲소설 : 20매 내외
- ▲수필·풍토 : 12매 내외
- ▲평론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통계조사 연구회에서는 통

연재 기간동안 학생회관 2층 동원재 (10. 24~26) 기간동안 학생세미나실에서 통계Package 프로그램전시회를 도서관 1층 사용법 및 분석에 대해 전시회와 지도를 한다.

한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악에서는 제 8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당에서 합주곡 「페르시아나트」 「에스파냐나트」 「독주곡 「그랜드슬로」 등을 연주한다.

역사인물법정

사우회에서는 오는 10월25일 오후 3시 중앙당에서 역사인물법정을 연다.

통학기차석

쓰레기더미나 날이 쌓여 악취심해

용역원고용동 학교축대책 마련해야

본교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를 다루어 내는 것은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연속성이 기인한 과잉 업무처리 쓰레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8년 직원노동조합창립을 계기로 직원은 학교발전을 주도하는 한 주체로 개나나 교수 학생들과 함께 동국발전을 애기하게 될 것이다.

배미경 <사범대 국교과>

통계분석법 전시

문화기획

주체적선별 거쳐야 할 편집영역

대학신문 광고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대학신문이 일반 기성신문들과 어떤 형태든 차별화의 요청을 받고 또 그러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면이 있다. 그것은 대학신문의 광고면일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신문들이 선도적으로 광고지면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체적 선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신문들은 광고면만 보고는 일반 기성신문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향락적 광고가 실리기도 하고 대기업체 중심의 소비향적 상품광고도 등장하며 때로는 특종의 이따살을 제후리게 하는 여성용 의약품이나 속옷광고가 실리기도 한다.

도 불구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성격에 따라 영혼한 간섭과 탄압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학자체의 탄압도 있고 때로는 외부적 힘의 작용에 의한 탄압도 있는 등 매우 대학신문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신문은 경제적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 그대안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신문이 지니는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대학신문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 있다. 실형성, 창의성, 순수성을 대학신문으로 부터 기대하고 제도권인문의 침묵과 외곽을 극복하고 민중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모두 사실은 일정한 이유를 획득해야 하는 기존 상업신문이 가지는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을 지향하는 자본으로부터 신문인의 제작에 개입하는 직·간접적인 힘을 언론내면 경제적 통제라 부른다. 경제적 통제는 소유자본에 의한 통제와 광고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대학신문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통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성신문과의 차별성을 발견한다. 즉, 대학신문이 신문제작 시 판매부수나 광고수입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상업적 수익이 없더라도 해서 경영으로부터의 압력이나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대학신문은 자본과 광고 이 모두로부터 자유스럽고 그런만큼 대학신문이 지니는 본래적 언론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자유스러워야 할 당위성에

도 불구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성격에 따라 영혼한 간섭과 탄압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학자체의 탄압도 있고 때로는 외부적 힘의 작용에 의한 탄압도 있는 등 매우 대학신문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신문은 경제적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 그대안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신문이 지니는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대학신문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 있다. 실형성, 창의성, 순수성을 대학신문으로 부터 기대하고 제도권인문의 침묵과 외곽을 극복하고 민중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모두 사실은 일정한 이유를 획득해야 하는 기존 상업신문이 가지는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을 지향하는 자본으로부터 신문인의 제작에 개입하는 직·간접적인 힘을 언론내면 경제적 통제라 부른다. 경제적 통제는 소유자본에 의한 통제와 광고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대학신문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통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성신문과의 차별성을 발견한다. 즉, 대학신문이 신문제작 시 판매부수나 광고수입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며 상업적 수익이 없더라도 해서 경영으로부터의 압력이나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형성·창의성 담보해야 할 빼놓을 수 없는記事 상품·기업광고의 존재도 버려야... 기획광고 활성화

실형성에도 불구하고 전기한 바와 같은 대학신문에 맞지 않는 광고들이 버젓이 대학신문의 지면을 채우고 있는 현실은 간파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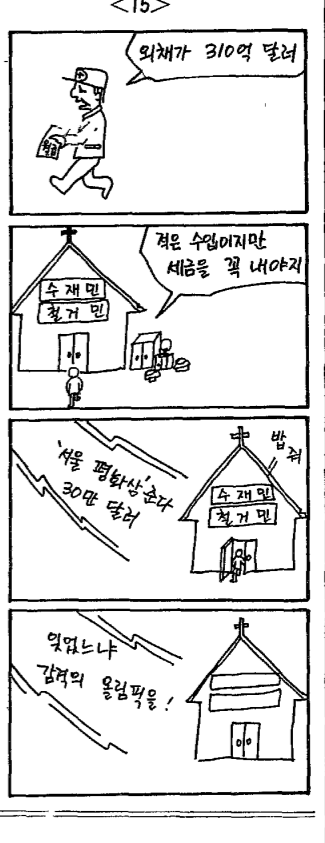
여기서 신문제작의 주체인 대학신문제작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별하고 주체적으로 광고의 내용과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넓게 보

지향적 광고는 독자를 우호하는 처사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학신문도 광고가 지니는 정기능과 역기능을 심각히 고려하여 광고의 품목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민중언론의 선도적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신문에 저질·퇴폐광고나 소비지향적 상품광고가 여과없이 마구실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말쭙기!



김성일 <15>



문화선전활동에 연대감 조성

경주캠퍼스 민중문화운동 연합(이하 민문연)은 지난 5월 18일 출판한 이래로 매시기마다 문화선전 활동을 담당해 내오고 있다.

한 활동을 하기 위해 각각 노래(상복수, 소리들, 울림), 그림(하늘과 바람), 연극(소리들), 연의(팔레트) 등 4개분과로 나누어 활동에 들어갔다.

중 노래분과의 '상복수'는 해체상태에 놓여있고 '울림'과 '소리들'은 지난 10일 통합하기로 하고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온방골 사대주의·향락문화 추방에 앞장

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앞으로 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계획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교실을 백상제전 기간 내에 열고 문화발간물 제작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동아리 연합체로 집체극을 공연하는 것과 화력고사 면접일에 수업 및 경주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민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립성 극복이라는 결심 의지를 살리며 연대사업국을 통해 경주 문화지역 단체와는 분과별 연대체제를 갖추고 대구·경북지역을 화성회연합(전준위) 문화부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지역연계 운동과도 교류를 같이할 수 있도록 연대의 틀을 강화하고 있다.

민문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공식기구화되지 않은 관계로 학교회의 지원상태가 미미하고 다른 학생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등 재정적 문제를 들 수 있으며 학생회관의 공간이 부족해 아직까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만화·컷 기자 모집

大學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날카로운 붓으로 깨워 만화·컷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〇명
- ◇응시자격: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응시방법: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2면이상 제출
- ◇접수마감: 1989년 9월 29일

※작품은 본사 문화부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만화·컷기자에게는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동대신문사



◇가 동아리별 고립성을 극복하고 건전문화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재정지원상태가 미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민중문화 운동을 지향하던 동아리들은 대부분 초창기로서의 어려움을 따르고 있었고 경주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한계도 절감하고 있었기에 민중문화운동연합체 건설에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11월에는 건준위를 구성해 조직체제를 갖춘 뒤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민문연에 참가했던 동아리는 '팔레트', '상복수', '소리들', '소리들', '울림', '하늘과 바람' 등의 6개 동아리로서 장르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의 꽃

수술과 혁신의 대안은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부패의 역사를 청산하고 비리의 온상을 확멸하기 위해서는 문교부 감사원과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공식인정장발표하는 수단이 전개되어야 하며 사법처리된 이들과 당시 핵심조직인사에 대한 중징계, 합

▲지난 31일 학교 행정수뇌부의 구속으로 인한 충격은 아직 우리를 가슴팍의 짐부른 법이다. 푸르른 들녘의 잡초가 같은 시련을 겪고 마라하는 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조화를 함으로써 일구우려 하는 마음을 지르려는 지혜를 발휘하여 자주의 살아남을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지난 5일 '동국의 자주적혁신을 위한 공동대행위'의 발족식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있으나 전체교수회의의 명단만 반응은 이제까지 주창하던 '대학의 주인은 교수이다'라는 구호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민문연에 참가했던 동아리는 '팔레트', '상복수', '소리들', '소리들', '울림', '하늘과 바람' 등의 6개 동아리로서 장르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7회 「동대신문학술상」 논문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뒀은 본사 學術賞이 傳統과 權威의 연륜을 쌓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분야

-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
-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
-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

◇응모분야

- ▲원고매수 =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 및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발표와 함께 공고
- ▲시 상 = 상장 및 상금(분야별 본상 20만원·가작 15만원)
- ▲제출기간 =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입상작발표 = 10월 18일 本紙 紙上

동대신문사

제4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東國의 文學적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學을 主導해 갈 壯志를 發揚하기 위해 全國의 大學生을 대상으로한 本社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本「東大文學賞」이 이땅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功業으로 정착할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知性人 여러분의 積極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분야

- ▲詩... 5편이상
- ▲小說... 60枚이상 (2백자 원고지)
- ▲評論... 60枚이상 (")

◇응모요령

-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 ▲제출기간: 1989년 9월 21일~28일까지
- ▲시 상: 시 부 = 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 =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 =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발표와 함께 공고
- ▲당선작발표: 1989년 10월 18일자 本紙 紙上
- ▲작품제출처: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작품제출은 「東大文學賞」 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대신문사